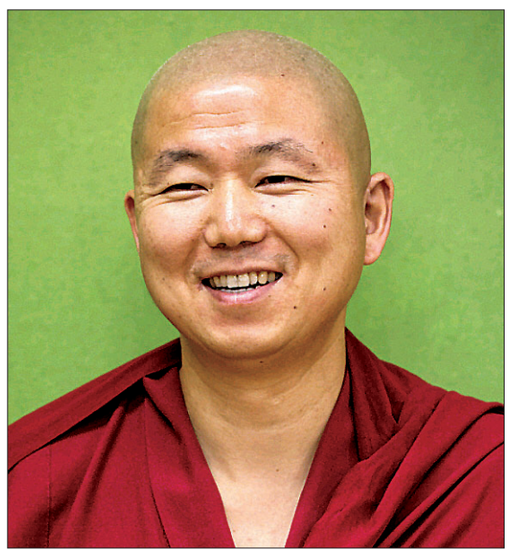
SNS에 올린 티베트 명상 편지글 모음

"행복 기대 내려 놓으면 조용히 찾아와"





용수 스님의 곰

용수 지음/스토리닷 펴냄/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은 티베트말로 '곰'입니다. 익숙해진다는 의미이지요. 선한 마음과 깨어있음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짧은 글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힘을 얻고 부처님의 법을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수행이 지극히 부족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인간되는 중, 착해지는 중, 스님 되는 중으로 부르는 용수 스님〈사진 위〉. 스님은 이처럼 자신이 중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긴다. 더불어 티베트불교 명상은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수행법이라고 그의 전작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를 통해 소개한다.

그동안 스님은 앞서 펴낸 자신의 책서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마음 습관이 됐는지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 〈용수 스님의 곰〉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SNS에 올린 티베트불교 명상에 관한 글 중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 받은 글을 골라 묶었다. 그래서 내용도 잠언 형식으로 읽기 쉽고 단박에 가슴에 와 닿는다. 몇 개의 글을 소개한다.

"행복했던 과거를 갈구하지 않고 행복할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재 행복을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행복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통할 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무엇을 숨겨서 말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말하지 말고 수수께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솔직담백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것이 효율적인 소통입니다"

"너도나도 곧 없을 것이다. 스쳐가는 우리 인연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따뜻해야 하지 않을까.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생은 영원 속에 지나가는 하루뿐 조만간 다시 보지 못할 당신 오늘은 조금 더 친절하게" "사랑은 힘 있고 복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겨울의 깊고 격렬한 눈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태양의 사랑으로 봄이 되면 장미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등등.

티베트 닝마파 한국지부인 세첸코리아를 설립해 지구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이자 수행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캬파 법왕 사캬 티진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등 티베트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실천이 약한 글이지만 읽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깨우침이 없고 성격도 썩 좋지 않고 자비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인자하고 깨달음이 깊은 스승들과 티베트불교의 유용하고 친절한 가르침과의 인연"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을 내는 소감에 대해 스님은 머리말을 통해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제 경험을 통해서 작성한 글을 여러 분들의 노고로 책이 나왔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침마다 도와주신 카페라떼 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가 없이는 생각도 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책이 여러분에게 힘과 행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용수 스님은 아홉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유타주립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2001년 우연히 달라이라마의 강의를 들은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2002년 달라이라마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도로 향하던 중에 네팔 카트만두서 그가 가장 아끼는 책들을 번역한 티베트 역경원의 창시자인 빼마 왕겔 린포체를 만나면서 출가했다. 그 후 남프랑스 티베트 불교선방에서 4년간 무문관 수행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 화계사, 무상사 등에서 수행하며 유나방송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티베트 닝마파 한국지부인 세첸코리아를 설립하여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이자 수행자인 마티유 리카르 스님, 사캬파 법왕 사캬 티진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여는 등 티베트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한다.

"그래도 불교는 희망의 종교"



그래도 불교

성법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1만 5천원

평소 '한국불교의 병폐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온 성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작금의 한국불교의 혼란은 승가의 문제인 인재(人災)이지 불법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승가의 폐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 같은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 연구되고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교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준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편집되었는데, 1부는 성법 스님이 그동안 불자들에게 강의해 온 '진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불교 교리' '수행' '현실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등을 정리한 것이고, 2부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새로 쓴 화엄경 십지품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성법 스님은 이 책, 특히 2부를 새로 쓰게 된 동기를 현재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대승불교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부파불교의 폐단을 반성하고 대승불교가 흥기할 당시 도약과 혁명과 같은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화엄경 십지품〉'이 있었고, 조계종 개혁 이후에 새롭게 담아야 할 불교 역시 대승불교, 보살행의 실천이기에, 이 책의 2부를 화엄경 십지품을 10바라밀행과 접목해 해설했다.

성법 스님이 이처럼 화엄경 십지품에 주목한 것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요체를 상세히 설하고 있는데다 수행의 열 단계인 10지가 10바라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바라밀까지는 자리 수행 덕목이고, 나머지 4바라밀이 이타 수행의 완성의 길인데, 6바라밀만 강조하고 이타행을 등한시한 것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요, 불교의 대중화에 실패한 원인이라고 설파한다. 성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이 새로운 대승불교운동에 있고, 화엄경 십지품에서 설하는 10바라밀대로 수행하고 보살행을 펼칠 때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법 스님은 적폐 청산, 불교 개혁이 화두인 현 상황에서 화두 타파 후, 한국불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한다. 경전에 의거한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통해 비불교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나눔과 봉사 등 선행의 실천을 통해 진짜 대승불교답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수월하고 매끄럽게 읽히는 〈금강경〉



금강경오가해

의진 해돈 역해/불교시대사/1만 8500원

대승경전의 기저에는 선리(禪理)가 깔려있다. 일반 독자가 접하기에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난해하다. 대승경전들의 독해 관문격인 〈금강경〉 이해를 통해 대승경전 전반에 걸친 이해수용의 틀이 잡히고 수선(修禪)의 자세가 갖춰졌으면 한다는게 저자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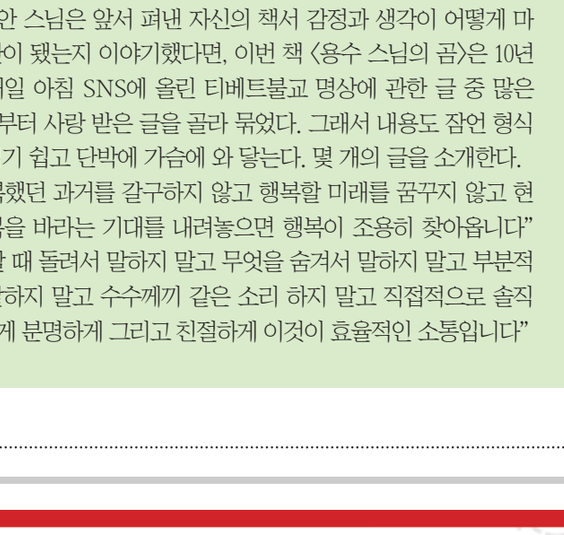
〈금강경〉은 현실과 아주 유리된 관념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도道로 이끄는 친근성이 있다. 부처님이 이 〈금강경〉 법문의 시작으로, 성내로 탁발하심과 보시행위의 중요성과 한계성, 수행중심 덕목 중의 하나인 인욕바라밀을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생들이 일상의 생계생활에서 뜻만 있으면 무리 없이 그대로 불교의 〈금강경〉 사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불교권의 국내 대표 선종파인 '조계종'이 이 경을 소의경전으로 정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싶다.

금강경오가해가 금강경 원문을 해설한 것이라고 하나 뜻을 풀이한 선사들이 제각각의 선리로 풀이해 놓아 혹간 독자들이 차라리 원문보다 더 어렵게 여길 정도이다. 그래서 불교를 불학으로 접근함보다 특별히 불도로 접근하면서 수도코자 하는 자는 바로 의미경계파악이 중요하니 그에 부응하여 한문에 가리어 난해한 의미를 여기 순 한글판 〈금강경오가해〉로 좀 수월하고 매끄럽게 읽히도록 해석한 것이 장점이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선사의 수행과 사상!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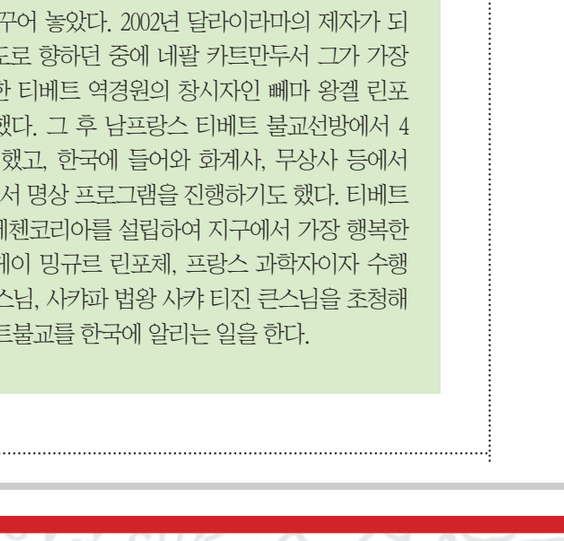


선사의 수행체험에서 우러나온 독특한 관법수행이 지닌 내용과 특징을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수행법들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청강 지음/신국판 양장/312쪽/값 17,000원

대승불교의 정수이자 교과서!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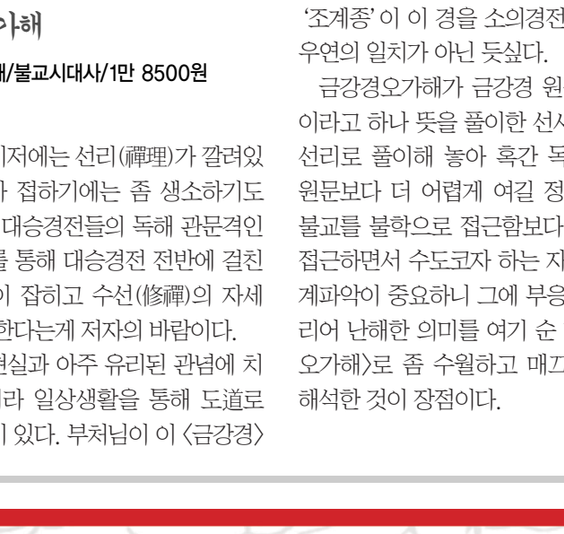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그러면서도 『기신론 소별기』의 정수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392쪽/값 20,000원

불교학과 교육학의 만남!

불교교육론



초기불교 및 남방불교의 교리 및 수행을 집약한 『청정도론』을 교육학 이론과 접목시켜 최상의 교육이론으로서 불교교육이론을 제시!

이송곤 지음/신국판 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